



◇ '달마야 놀자'의 속편 '달마야 서울 가자'가 내년 6월말 개봉된다. 사진은 '달마야 놀자' 주인공 4인방. 왼쪽부터 류승수, 이문식, 정진영, 이원종씨.

2001년 개봉해 전국 400만 관객을 동원한 '달마야 놀자'의 속편 '달마야 서울 가자'가 내년 6월말 개봉된다. 사진은 '달마야 놀자' 주인공 4인방. 왼쪽부터 류승수, 이문식, 정진영, 이원종씨.

“달마야 서울 가자” 내년 1월 ‘크랭크인’

‘달마야 놀자’ 속편, 6월말 개봉 예정 정진영 등 전편 활약 4인방 모두 출연

화 촬영을 위한 식발에도 불구하고, 흔쾌히 출연 결정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에게 전편과 달라진 점이 있다면 높아진 출연료와 개성이 짙어진 각자의 캐릭터. 해병대 출신의 청명 스님(정진영)은 더욱 더프해진 모습으로, 현각 스님(이원종)은 환상의 당구 솜씨로 서울 건달들을 상대한다. 묵언수행을 끝까지 마치지 못했던 수다쟁이 명천 스님(류승수)도 이번 영화에서 다시 한번 제대로 된 묵언수행에 들어간다. 스님들과 팽팽한 대립구도를 이

루는 건달의 우두머리 역할에는 신현준 씨가 캐스팅 됐다. 신 씨가 맡은 역할은 엘리트 건달 ‘범식’으로, 전편의 ‘재규(박신양)’처럼 스님들을 잡아서 쫓아내기 위해 갖은 궁리를 다하는 인물이다. ‘장미빛 인생’, ‘축제’의 각본을 쓰고, 2년 전 ‘아이언 팜’으로 데뷔했던 옥상호 감독이 메가폰을 잡는 ‘달마야...’는 총 25억원을 들여 제작된다. 오는 2004년 1월부터 촬영을 시작해 6월말 개봉할 예정이다.

한상희 기자 hansang@buddhapia.com

“불교특색 묻어내는 프로 주력”

한국아나운서상 수상, 불교방송 이선희씨



“불교계 방송으로서의 특색이 살아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2월 17일, ‘2003 한국 아나운서 대상’ 라디오 진행상 부문을 수상하게 된 불교방송 이선희

아나운서(사진)의 각오가 남다르다. 이 아나운서는 1990년 불교방송의 개국때부터 ‘새 날, 새 아침’, ‘거룩한 만남’, ‘무명을 밝히고’ 등 거치지 않은 프로그램이 없을 정도로 맹활약해 온 불교방송의 간판급 아나운서다. 데뷔 18년차나 되는 중견이지만이 아나운서는 현재 매주 월~토요일 밤 ‘BBS 초대석’을 진행하는 등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다. “마이크 앞에 설 때면 항상 초심을 잃지 않으려 한다”는 이 아나운서는 “앞으로 30년이 넘도록 사랑받는 아나운서가 되라는 의미로 알고 더욱 정진하겠다”며 소감을 덧붙였다.

한상희 기자



티베트 관련 다큐멘터리 OST모음 음반집 출시

미국에서 상영되고 있는 티베트 관련 다큐멘터리 ‘Cry of the Snow Lion’의 OST 음반이 출시된다. 내주에 선보이게 될 이번 앨범은 티베트의 명상음악가 나왕케츠크와 예미상 수상자인 제프빌이 공동으로 작업했다. 티베트의 전통악기 연주를

비롯해 열불, 합창 등 다양한 장르의 티베트 음악을 만날 수 있다. (02)762-0232

국가상징 디자인 공모展

한국디자인진흥원은 12월 18일까지 코리아 디자인센터 전시장에서 ‘제 1회 국가 상징 디자인 공모展’을 연다. 이번 전시회에는 석굴암, 거북선, 다보탑, 무궁화, 아리랑, 태극기 등 다양한 유무형의 디자인들이 출품돼 선보일 예정이다. (031)780-2161, www.designdb.com/kidp

끊임없는 자기탐구·수련 새로운 세계 캔버스에

강정희씨 인사동·부산서 연속 전시

우리의 인생은 잠시도 머무름없이 매순간 떠남을 반복하고 있다. 그 떠남은 단순한 여행에서부터 자기자신을 찾고자 하는 무거운 이유까지 다양하다. 바로 화가 강정희씨가 안정된 생활을 하던 뉴욕에서 화구를 급히 꾸러 인도로 떠난 까닭도 결코 평범하지 않다.

끊임없는 자기 탐구와 모색을 통해 이제까지 고수해 오던 과거의 모습을 청산하고 새로운 세계를 캔버스위에 펼쳐기 위해서다. 그래서 붓의 터치로만 캔버스의 화폭을 채우지 않고 테트핀을 부어가며 작업을 했다. 과거처럼 붓으로만 그리기엔 너무 경직된 느낌이 들기 때문이었다.

또한 ‘떠나면 땅’ 인도에서 성지순례와 ‘고엔카 명상센터’에서의 명상수련을 통해 자신을 비우는 수련을 계속 했다. 이런 고뇌의 시간을 통해 토해낸 작품들이 한자리에 전시된다. 12월 19일까지 인사동 갤러리 상에서 열리는 ‘강정희 展’이 바로 그것이다. 작품전의 준비작업 때문일까, 이번 전시에 선보인 대다수 작품 제목들에 불교적 냄새가 가득하다.

‘쉬는 마음’, ‘응답’, ‘자유로운 존재’, ‘깨달음의 완성’, ‘떠나는 자’ 등이다. 특히 ‘자유로운 존재’는 태어나서 늙어 죽음을 문턱을 향해 가면서도 미지에 대한 불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은 보리수 나무를 형상화한 강정희씨의 ‘깨달음의 완성’.

안감을 항상 안고 살아가는 중생의 모습을 그렸다. 또 ‘깨달음의 완성’은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은 보리수 나무를 형상화 했다. 구체적인 사물의 모습이 펼쳐져 있지 않아 몽환적인 분위기가 연출되는 강씨의 작품을 대하면 작가의 구도열정에 대한 이심전심이 전해져서 인지 법당에 앉아 있는 것처럼 고요하고 평안한 느낌이 든다. 12월 21일부터 31일까지는 부산 해운대 갤러리 몽마르트르에서 부산 순회전시회를 갖는다. 서울(02)730-0030, 부산(051)746-4202 김주일 기자



◇수안 스님의 선서화

천성산 도롱뇽 소송인단은 결성된지 3일 만에 10만을 넘어섰다. 이제 1백만을 향해 나아가고 있을 만큼 불교계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큰 화제가 되고 있다. 선서화가 수안 스님도 이번 운동에 일조하기 위해 팔을 걷어 부쳤다. 그 일환으로 12월 13일 오후 4시부터 부산불교회관 4층 대전실에서 기금마련 ‘선서화 특별展’을 연다. 이 전시회에 수안 스님의 신작 50점이 선보인다. 여기에 불교계 화단의 이름있는 작가들도 힘을 보탠다. 이철수씨와 정비파씨의 목판화, 한기승씨의 조각, 김성욱씨의 수간채색, 황진규씨의 선묵화, 성공스님의 달마도, 김연씨의 회화 작품 등 80여 점도 전시된다. (051)623-9220 김주일 기자

방송 프로그램

05:45 고승열전	서울 FM 101.9 MHz	06:45 고승열전
09:05 차 한잔의 선율	부산 FM 89.9 MHz	09:05 차 한잔의 선율
11:10 행복스튜디오	광주 FM 89.7 MHz	11:10 행복스튜디오
15:05 음악의 마을	대구 FM 94.5 MHz	15:05 음악의 마을
17:10 무명을 밝히고	광주 FM 96.7 MHz	17:10 무명을 밝히고
21:30 BBS 초대석	춘천 FM 100.1 MHz	21:30 BBS 초대석
24:00 살며 생각하며		24:00 살며 생각하며

아 이 라 이 트

- 불교방송: △살며 생각하며(12월 18일 24:00-02:00) - 가수 장연주 씨가 진행하는 심야 프로그램. 음악 속에서 삶을 생각하며 하루를 정리해 본다. 매주 목요일에는 일주일간의 인터넷 베스트 검색어를 통해 우리 사회와 문화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클릭! 베스트 검색어’가 방송된다.
- 불교텔레비전: 밤상에 도가 있다(12월 18일 09:10-10:00) - 몸이 질병이 없어도 피부가 아름답다. 피부는 건강의 거울이며, 피부병은 질병을 예고하거나 질병의 진행상태를 나타낸다. 12월 18일 방송되는 27강 강의에서는 건강한 피부와 신체를 유지하기위한 방법에 대해 알아본다.

우 · 리 · 절 · 은 · 불 · 자 · 여 · 러 · 분 · 을 · 사 · 랑 · 합 · 니 · 다

우리절 정기기도 · 법회

- 매주 일요일 오전 10시 ~ 오후 2시 일요법회
-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 ~ 오후 2시 자녀 및 입시기도 목련사랑법회
-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 오후 3시 특별대비주기도회
- 매월셋째 화요일 오후 2시 ~ 4시 부산 동 선 회 법 회
- 곤지암터미널 - 우리절 셔틀버스 운영

곤지암 우리절 천도재 기도도량 · 대비주 기도도량 우리절!

[III-1030] 기도봉행
 <제 3차 1030일 지장천도기도>
 ○ 입재 : 2003년 11월 2일 ○ 회향 : 2006년 8월 27일

동지기도안내

○ 오는 12월 20일 부터 12월 22일까지 동지삼일특별기도를 병행합니다. 그리고 동지기도에 즈음하여 한국불교 1700년 역사상 최초로 우리말사언절로 원역한 동종스님의 42번째 책 <<예수제의>> (<<일원국>> 제7권)를 동참하신 분들에게 무료로 배포시킵니다. 오는 2004년도 전국의 모든 사찰에서 병행되는 예수제 의식집으로써 시중에서는 구할 수 없는 매우 소중한 자료입니다.

제1차 49재 및 승년법회
 ○ 일시 : 2003년 12월 21일(일) 오전 10시

우리절은 국내에서는 보기 드문 대비주 기도도량입니다.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 오후 3시, 장장 5시간에 걸쳐 논스톱으로 올리는 대비주 기도에 불자님들의 모든 바램을 한번 멋지게 걸어보십시오. 그리고 또한 우리절은 온갖 정성을 다 기울여 선망조상 영가님들을 천도하는 역시 국내에서는 보기 드문 천도재 기도도량입니다.
 주(대비주 = 신묘장구대다라니)

◆ 교통편
 1. 강변역 → 광주 → 곤지암 1113-1
 2. 잠실 → 모란 → 광주 → 곤지암 500-1
 3. 양재 → 모란 → 광주 → 곤지암 500-2

대한불교조계종 우리절 http://www.urijeol.com / 우리절.com / 우리절.net 우)464-881 경기도 광주시 도척면 삼림리178 전화 031)763-4674-5 / 팩스 031)763-2150